



시간 여행

명정초 6-5 김재환

엄마와 나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치매가 있으신 외할머니를 보려고 갔다. 할머니께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다.

“할머니!”

할머니는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다. 이젠 진짜로 할머니와 만났다. 엄마는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는 ‘황도’를 꺼냈다. 쪼글쪼글 주름진 입에 황도를 잘라 먹여 주었다. 할머니의 눈을 텅 빈 공허처럼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다.

엄마와 나는 얼마 안 있다가 나왔다. 왜인지 모르게 할머니의 눈이 마음에 걸렸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누웠다. 눈에 질끈 감았다.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크게 숨을 내쉬었다. 답답했다. 답답하고 또 답답했다. 그대로 잠에 들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께서 다 내려놓은 듯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곤 눈을 떴다. 꿈이었다. 희한한 꿈이었다.

한 달 뒤, 할머니께서 유골함에 들어가셨다. 정말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살아계셨는데?’라고 생각했다. 느껴지지 않았다.

할머니를 산소에 묻자 그제야 느껴지기 시작했다. 엄마가 17살쯤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옆에 묻히셨다. 이제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건 기억 속 시간 여행뿐이었다. 시간 여행을 하니 깊은 눈, 모공이 보이는 코, 찡글찌글한 입, 활력을 잃은 귀, 흰 머리카락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 전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점차 기억 속 시간 여행도 흐릿해지고 있었다. 방안에 혼자 앉아서 두리번거렸다. 창문을 통해 붉은 하늘 날 까마귀가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붉은 하늘 까마귀가 지나가면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책에 있었다. 나는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불을 끄고 잠에 들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만나 서로 포옹을 하고 있었다. 절로 미소가 나왔다. 그리곤 잠에서 깼다. 나는 이 사실을 말하려고 엄마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엄마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무시고 있었다. 슬픈 꿈을 꾸는 듯했다.

나는 축축이 젖은 베개를 바꿔주고 문을 닫고 나왔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할머니의 눈은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인 건가?’라고 말이다. 내 꿈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눈빛은 또렷했다. 그제야 나는 할머니의 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때 엄마가 탕탕볼처럼 부은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무슨 꿈을 꿨기에 눈물이 나?”

“…….”

엄마는 대답 없이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엄마가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짐작이 갔다. 나는 엄마에게 라면을 끓여 주려 주방

으로 향했다. 종이컵을 꺼내고 냄비를 꺼냈다. 물을 3컵 받고 물을 끓였다. 물은 작은 구슬에서 큰 구슬을 만들며 끓여졌다. 건더기 수프와 분말수프를 넣고 사리를 넣었다. 그리고 4분을 기다린 후 그릇에 라면을 담았다.

엄마는 잠긴 목으로 “맛있다.”라고 작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문 틈 사이로 들리는 후루룩 소리가 내 귀를 간지럽혔다. 엄마가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힘내’라고는 말하고 싶다. 이 또한 지나간 과거처럼 잘 지내길.

